

일제강점기의 제주 지명*

- 제주군 신우면(애월읍)을 중심으로 -

오 창 명**

국문요약

이 논문은 일제강점기 '제주군 신우면(지금 제주시 애월읍)'의 지명 일부를 찾아서 연구한 것이다. 『朝鮮地誌資料』(1911)와 1918년의 1대 5만 지형도 가운데 '翰林(濟州島北部十二號)'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우면 지명을 목록으로 정리하고, 한자 차용 표기로 되어 있는 것은 본디 소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형태 분석을 하여, 의미를 파악하려 했다. 일본어(가나 문자)로 표기된 것도 본디 소리를 찾고 형태 분석을 하여 의미를 파악하려 했다.

『朝鮮地誌資料』(1911)에서는 40여 개의 지명, '翰林(濟州島北部十二號)'에서는 60여 개의 지명을 확인하고, 각각을 행정마을로 하위분류하여 지명을 분석하였다.

이런 분석을 통해 현대에 지명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표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소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가령 제주시 광명리를 지나는 내의 본디 이름은 '무쇠내>무수내'인데, 오늘날은 無愁川(무수천)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蕪蕪川으로 표기되고, 조선시대에는 無愁川 또는 水鐵川 등으로 표기되었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C-A00397)

**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현대에 전하는 지명의 소리가 제대로 된 것인지, 표기가 제대로 된 것인지,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등을 밝힐 수 있어서, 지명 연구에 도움을 준다.

핵심어 : 일제강점기, 제주 지명, 신우면, 조선지리지(1911), 1대 5만 지형도(1918)

1. 서론

이 글은 일제강점기 ‘제주군 신우면(지금 제주시 애월읍)’의 지명 일부를 찾아서 연구한 것이다. 먼저 일제강점기 초반의 제주 지명을 기록한 『朝鮮地誌資料』(1911) ‘권17, 전라남도, 제주군, 신우면’의 지명 목록을 정리하고, 1918년에 간행한 1대 5만 제주도 지형도 가운데 ‘翰林(濟州島北部十二號)’에서 ‘신우면’ 지명을 목록으로 정리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지명 목록을 바탕으로 하여, 한자 차용 표기로 되어 있는 것은 본디 지명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형태 분석을 하고, 의 의미도 파악하려 했다. 아울러 당시 일본어(가나 문자)로 표기된 것도 본디 이름을 찾고, 형태 분석을 행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려 했다.

먼저 『朝鮮地誌資料』(1911)의 ‘전라남도 1-1(권17), 全羅南道, 濟州郡’에 기록된 ‘新右面’의 지명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이 40여 개가 확인된다.

山名 : 破軍峰, 水山峰, 高內峰, 窠峰, 於道岳, 今德峰, 極洛峰

里名 : 下貴里, 水山里, 高內里, 郭支里, 於道里, 今德里, 古城里, 納邑

里, 涯月里, 下加里, 舊巖里, 召吉里, 光舍里, 光令里

川名: 屏風川, 鵬登川, 院川

平野名: 東坪

關防名: 涯月鎭

市場名: 涯月場

池名: 蓮花池

浦口名: 黃浦, 槎浦, 右指浦, 下水浦, 長沙浦

酒幕名: 院洞酒幕, 蕪藪川酒幕, 一味水酒幕, 院東山里, 水頭洞酒幕

峙名: 高峙

일제강점기 1대 5만 지형도<1918:25-1-12/翰林(濟州島北部十二號)>에서, 당시 신우면 지역의 지명 표기를 보이면 다음과 같이 60여 개가 확인된다.

下貴里/하키리, 上貴里/송키리, 古城里/야송유어, 水山里/수산리, 舊巖里/구오머니, 新巖里/신오머니, 長田里/찬정요리, 今德里/금토크리, 高內里/코너리, 下加里/소가리, 上加里/송가리, 涯月里/야월리, 郭支里/곽지리, 納邑里/나읍리, 錦城里/김성리, 召吉里/소기리, 於音里/오음리, 於道里/오도리, 古城里/고성리, 光令里/광령리

君郎洞/군랑동, 味水洞/미수동, 可文洞/가문동, 盖水洞/개수동, 昭王洞/소왕동, 光洞/광동, 有信洞/유신동, 紗羅洞/사라동, 松浪/송낭, 流水洞/류수동, 沙浦/모실게, 龜沒伊洞/구몰메동, 月角洞/월각동, 月角伊/월각이, 夫面洞/부면동, 者伊田/차이계동, 上花田/상화계동, 下花田/하화계동

破軍峰/파군봉, 水山峰/수산봉, 高內峰/코너드, 郭岳/곽악, 於道岳/오도악, 三山岳/삼산악, 赤岳/적악, 老路岳/노로악, 鹿古岳/노코메악, 漢大岳/한대악, 多栗岳/타레악, 猫岳/묘악, 發伊岳/팔미악, 新星

岳/セピョルオルム
蓮池/ヨンケ, 院/ラン

‘新右面’은 일제강점기 초반과 중반에 ‘全羅南道 濟州島’의 13면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다가 1936년 4월부터 涯月面으로 명칭이 바뀌고, 다시 1980년 12월 1일부터 涯月邑으로 바뀐 뒤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12년의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명치 45년, 조선총독부)을 보면, 당시 ‘新右面’에는 다음과 같이 19개 마을이 있었다.¹⁾

光令里 下貴里 上貴里 水山里 舊嚴里 新嚴里 長田里 召吉里 古城里
下加里 上加里 今德里 高內里 涯月里 納邑里 於音里 郭支里 錦城里 於
道里

이 19개 마을 순서에 따라, 위 지명 목록을 배치하여 지명의 소리, 형태, 의미 등을 분석하였다. 중복된 것은 하나로 통합하였다.

2. 본론

2.1. 光令里

光令里/クワンヨンニー, 光舍里, 光洞/クットン, 有信洞/유신돈
洞, 紗羅洞/사라돈, 蕪藪川酒幕, 高峙, 赤岳/플클콘올름

光令里는 ‘광영이마을 광영마을’의 차자표기이다. 『朝鮮地誌資料』(1911)에서 光舍里도 확인되는데, 이는 光令里의 오기인 듯하다.

1) 1906년의 『제주도사정』의 ‘12. 濟州郡’ 조에는 신우면에 20리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光洞은 ‘광동이 꺽동이’의 차자표기이다. 지금은 광령3리에 속하는데, 제주4·3사건 이후에 폐동되었다.

有信洞은 ‘이신굴동네·이싱굴동네’ 또는 ‘이신물동네·이승물동네’의 차자표기이다. 지금은 광령2리에 속한다.

紗羅洞은 ‘사라^ㅁ을’의 차자표기이다. 지금은 광령1리 ‘사라마을’이라 하고 있다.

蕪藪川酒幕의 蕪藪川은 ‘무수내’의 차자표기로, 오늘날은 고유어 ‘무수내’라는 소리가 거의 사라지고 주로 ‘무수천’으로 부르고 있다.

高峙는 광령1리 ‘높은^ㅁ르’(무수넛다리와 이승물 사이에 있음.)의 차자표기이다. ‘높은’의 차자로 高가 쓰이고, ‘르’의 차자로 峙가 쓰인 것이다.

광령리 산간에 ‘붉은오름’이 있는데, 赤岳으로 표기되어 있다. 일본어 ‘ブルクンオルム’ 표기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 下貴里

下貴里/ハーキリ, 破軍峰/バクンボン, 君郎洞/クンナンドン, 味水洞/シミスードン, 可文洞/カムンドン, 盖水洞/ケースードン, 屏風川, 鵬登川, 黃浦, 一味水酒幕

하귀리는 예로부터 ‘귀일’의 아래라 하여 ‘알귀일’로 불리오다가, 차자표기로 下貴日리로 쓰다가 日을 생략하여 下貴里라 했다.

破軍峰은 ‘바굼지오름·바군지오름’의 차자표기이다. 근래까지도 ‘괘군봉’이라 하다가, 요즘은 ‘바굼지오름’으로 부르고 있다. ‘바굼지’는 ‘바구니’의 제줏말이다.

君郎洞은 ‘군랭이[군냉이]’의 차자표기이다. 지금은 하귀1리 바닷

가 마을 가운데 하나이다.

味水洞은 ‘입니물동네 입님물동네’의 차자표기이다. 一味水酒幕의 一味水에 ‘일미물’의 차자표기이다. 원래 ‘일미물’이라 하던 것이 소리가 변하여 ‘입니물’로도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一味水에서 一을 빼는 것이 味水이다.

可文洞은 ‘감은갯동네’라 차자표기이다. ‘감은개’ 가까이에 형성된 동네라는 뜻이다. ‘감은’은 짙을 뜻한다.

盖水洞은 ‘개물동네’의 차자표기이다. ‘개물’은 ‘개 물’의 변음인 듯하다.

屏風川은 ‘벙풍내’의 차자표기이다. 그러나 요즘은 주로 古城川이라 하고 있다. ‘벙풍’(병풍)을 두른 듯한 곳을 지나는 내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鵬登川은 ‘봉등내·봉둥내’의 차자표기이다. 그러나 요즘은 주로 ‘소왕천’이라 하고 있다.

黃浦는 ‘한개>항개>황개’의 차자표기이다. 요즘은 ‘항포 포구’라 하고 있다. ‘황’은 ‘한[大]>항’의 변음이다.

2.3. 上貴里

上貴里/ソン키リ, 昭王洞/ソウンドン

상귀리는 예로부터 ‘웃귀일’이라 불려오다가, 차자표기로 上貴日리로 쓰다가 日을 생략하여 上貴리라 했다.

昭王洞은 예로부터 ‘소왕이물’ 일대에 형성된 ‘소왕잇동네’의 차자표기이다. ‘소왕이’는 ‘소왕이’라고도 하는데, 가시영경퀴를 이르는 제죽말이다.

2.4. 水山里

水山里/스ーサンリ, 水山峰/스ーサンボン, 院川

水山里와 水山峰의 水山은 ‘물메’의 차자표기이다. 예로부터 ‘물메오름’[水山岳>水山峰] 가까이에 형성된 마을이라서 ‘물메’ 또는 ‘물메마을’[水山里]이라 했다. ‘물’은 水로 표기되고, ‘되>메’는 山으로 표기되었다.

院川은 ‘원내’의 차자표기로, 오늘날은 ‘원내’라는 이름은 잊히고 수산천(水山川)이라 하고 있다. ‘물메오름’ 동남쪽에 수산저수지가 조성되어 있다.

2.5. 舊巖里

舊巖里/クーオムニ一, 槎浦, 院東山里

舊巖里는 ‘묵은엄쟁이’ 또는 ‘묵은엄쟁이마을’의 차자표기인 舊巖莊里에서 莊을 생략하여 舊巖里라 했다. ‘엄쟁이’는 ‘엉장’(낭떠러지나 절벽)의 변음으로, 이 마을의 바닷가가 ‘엉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데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槎浦는 ‘텃개’의 차자표기이다. 예전에는 ‘철무짓개’로도 불렀는데, 요즘은 ‘구엄 포구’라 하고 있다.

院東山里는 ‘원동산동네’의 차자표기이다. 조선시대에 쉬어 갈 수 있는 院이 있었던 동산을 ‘원동산’이라 하고, 이 ‘원동산’ 일대에 형성된 동네를 院東山里라 쓴 것이다. 지금은 院의 흔적도 없다.

2.6. 新嚴里

新嚴里/シンオムニー

新嚴里는 ‘새엄쟁이^ㅁ울’이라 부르고, 차자표기로 新嚴莊里로 쓰다가, 莊을 생략하여 新嚴里라 했다. ‘엄쟁이’(엄장)에 새로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새엄쟁이’라 한 것이다.

2.7. 長田里

長田里/チャンヂョン리

長田里는 ‘장밭^ㅁ울’의 차자표기이다. 예로부터 ‘긴 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데서 ‘장밭’이라 불러왔다. 그러므로 ‘장밭’은 혼종어라 할 수 있다.

2.8. 召吉里

召吉里/ソキリ, 院洞酒幕, 院/ラン

召吉里는 ‘췌질^ㅁ울’의 다른 소리 ‘소길^ㅁ울’의 차자표기이다. 조선 시대에 한때 牛路里로 표기한 적도 있었다.

院洞酒幕의 院洞은 조선시대에 쉬어 갈 수 있는 院 일대에 형성된 동네를 이른다. 소길리 산간과 상가리 산간 경계에 있었다. 제주 4·3사건 이후에 폐동되었다가, 근래에 이 일대에 무인호텔이 들어서 있다. 『조선지리지자료』(1911)은 院洞酒幕으로 표기되고, 일제강점기 1대 5만 지형도(1918)에는 ‘院/ラン’으로 표기되어 있다.

2.9. 古城里

古城里/ヲソニュー, 極洛峰, 三山岳/サムサンオルム

古城里는 ‘항바두리(항파두리)’를 옛 성이라 하여 古城이라 쓴 데서 온 것이다. 민간에서는 ‘괘성(--ㅁ 읍)’ 또는 ‘괘성(--ㅁ 읍)’으로도 불린다.

極洛峰은 ‘그레기오름’의 차자표기이다. 오늘날은 ‘그레기오름’이라는 소리는 잊히고, 주로 극락봉(極樂峰)이라 하고 있다.

三山岳은 ‘산세미오름’의 차자표기이다. 조선시대에는 活泉岳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어 ‘サムサンオルム’(삼산오름)은 ‘산세미오름’의 변음을 표기한 것이다.

2.10. 下加里

下加里/ソーガリー, 蓮花池 蓮池/ヨン케

下加里는 ‘알더럭ㅁ 읍’의 차자표기인 下加樂里에서 樂을 표기에서 생략한 것이다. 아래 있는 ‘더럭’이라는 데서 ‘알더럭’이라 했는데, ‘더럭’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이 마을에 연못이 있는데, 그것을 예로부터 蓮花池 또는 蓮池라 써왔다. 오늘날은 주로 蓮花池라 하고 있다. 지금도 연꽃이 많이 자라고 있다. 원래 ‘연못’이라 하여 蓮池라 쓰던 것이, 나중에 연꽃이 자라면서 蓮花池로 바뀐 것이다.

2.11. 上加里

上加里/ソングアリー

上加里는 ‘웃더럭^ㄹ을’의 차자표기인 上加樂里에서 樂을 생략한 것이다. 위에 있는 ‘더럭’이라는 데서 ‘웃더럭’이라 했는데, ‘더럭’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2.12. 今德里

今德里/クムトクリ, 今德峰, 流水洞/ユースードン, 鹿古岳/ノクコメオルム, 老路岳/ノロオルム

今德里와 今德峰의 今德은 ‘금을데기 · 검은데기’의 차자표기이다. 조선시대에는 黑德 또는 今勿德, 感恩德 등으로도 표기되었는데, 今勿德에서 勿을 생략한 것이 今德이다. 유난히 검은 빛의 바위언덕이 있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곧 ‘금을 · 검은’은 黑의 뜻이고, ‘데기 · 덕’은 언덕을 뜻하는 말인데, 德으로 표기되었다. 20세기 말에 今德里는 流水岩리로 통합되었다.

流水洞은 ‘흐리물바웃동네’의 차자표기인 流水岩洞에서 岩을 생략한 것이다. 지금은 流水岩리라 하여, 유수암리의 本洞이 되었다.

유수암리와 소길리 경계의 산간에 ‘노꼬메오름’이 있는데, 鹿古岳으로 표기되어 있다. 鹿古岳은 일본어 ‘ノクコメオルム’(노꼬메오름)으로 표기되어 있다.

유수암리와 상가리, 봉성리 경계의 산간에 ‘노로오름>노리오름’이 있는데, 老路岳으로 표기되어 있다. 일본어 ‘ノロオルム’ 표기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2.13. 高內里

高內里/コーネーリー, 高內峰/コーネードン, 右指浦

高內峰은 ‘고내오름’의 차자표기이고, 이 ‘고내오름’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는 동네를 ‘고내오름^ㅁ 읍’이라 했는데, 이를 高內里로 표기했다. 高內峰은 조선시대에 高內岳으로 표기되었다.

右指浦는 ‘우짓개’의 차자표기이다. 지금 고내 포구를 이르는데, 그 안쪽에서 솟아나는 물을 ‘우지물 우주물’이라 부른 데서 ‘우짓개’라 한 듯하다. 민간에서 ‘우주물’이라는 이름은 전하는데, ‘우짓개’라는 이름은 잊혀졌다.

2.14. 涯月里

涯月里/アユヲルリ, 下水浦, 涯月鎭, 涯月場, 水頭洞酒幕

涯月里는 예로부터 ‘애월’이라 했는데, 涯月이 ‘애월’을 음차한 것인지, 또 다른 말을 훈차나 음차 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下水浦는 ‘하물개’의 차자표기이다. ‘하물’은 ‘큰 물’을 뜻하는 고유어 ‘한물’의 변음인 듯하다.

조선시대에 ‘하물’ 서쪽에 鎭을 설치하고 涯月鎭이라 했다. 일제강점기부터 신우면의 중심마을이 되었는데, 이때 涯月場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水頭洞酒幕의 水頭洞은 ‘물머릿동네’의 차자표기이다. 지금 애월리 바닷가 ‘큰물머리’ 일대에 형성되었던 동네를 이른다.

2.15. 納邑里

納邑里/ナウブリー, 東坪

納邑里는 ‘납^ㅁ 읍’의 차자표기이다. ‘납’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예

로부터 곽지리와 납읍리를 아울러서 ‘과납’이라 불리왔는데, 이 ‘과납’은 ‘곽납(곽지+납)’이 변음이다.

東坪은 ‘동벙디 동병뒤’의 차자표기이다. ‘벙디·벙뒤·병뒤’는 들판을 이르는 제주말 가운데 하나로, 차자로는 坪代, 坪 등으로 표기했다.

2.16. 於音里

於音里/オウムニー, 夫面洞/フミョンドン, 月角洞/ラルカクドン, 月角伊/ラルカクイー, 漢大岳/ハンデオルム, 多栗岳/タレオルム, 發伊岳/パルミオルム

於音里는 ‘얼음비_ㅁ을·어림비_ㅁ을’의 차자표기인 於音非里에서 非를 생략한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얼음비’가 氷非로도 표기되었다. ‘얼음비’는 ‘얼음빌레’의 변음으로, 얼음과 같이 차가운 너럭바위라는 데서 만들어진 말이다. ‘어림비’는 ‘얼음비’의 변음으로, 지금 어음2리를 이른다.

夫面洞은 ‘부메니>비메니’의 차자표기로, 지금 어음1리를 이른다. ‘부메니>비메니’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月角洞은 ‘ㄷ계깁동네’의 차자표기이다. ‘ㄷ계깁’은 月角으로 표기한 것이다. ‘ㄷ계깁동네’는 동쪽과 서쪽에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月角洞은 ‘동ㄷ계깁동네’를 이르는데, 제주4·3사건 이후로 폐동되었다.

月角伊도 ‘ㄷ계깁동네’의 차자표기로, ‘서ㄷ계깁동네’를 이른다. 제주4·3사건 이후로 폐동되었다.

어음리와 봉성리 경계의 산간에 ‘한데오름’이 있는데, 漢大岳으로 표기되어 있다. 일본어 ‘ハンデオルム’ 표기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음리 산간에 ‘ㄷ 레오름’이 있는데, 多栗岳으로 표기되어 있다. 일본어 ‘タレオルム’(다레오름) 표기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어음리와 상가리 경계의 산간에 ‘바리메’(바리메오름)가 있는데, 發伊岳으로 표기했다. 그러나 일본어 ‘バルミオルム’ 표기에서 ‘바리메오름’을 확인할 수 있다.

2.17. 郭支里

郭支里/ククチリ, 長沙浦, 窠峰, 郭岳/ククオルム

郭支리는 ‘곽지_ㅁ을’의 차자표기이다. ‘곽지’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이 마을 바닷가에 길게 모래밭이 펼쳐져 있는데, 이곳을 ‘진모살’이라 부르고, 이 앞 바닷가에 있는 ‘개’는 ‘진모살개’라 불렀다. ‘진모살개’의 차자표기가 長沙浦이다. ‘진’은 ‘긴[長]’의 변음이고, ‘모살’은 ‘모래’의 제죽말이다. ‘개’는 포구를 이르는 고유어이다.

窠峰과 郭岳은 각각 ‘과오름’과 ‘곽오름(ククオルム)’의 차자표기이다. ‘곽오름’[郭岳]의 첫음절 말음이 묵음화하여 ‘과오름’으로 실현되고, 이를 따라서 窠峰으로까지 표기되었다. 오늘날도 주로 ‘과오름’이라 하고 있다.

2.18. 錦城里

錦城里/タムソンニー, 沙浦/モシルゲ

錦城里는 마을에 있었던 돌담을 칭하는 말로, 새로 지은 것이다.

예전에는 ‘모살갓동네 모슬갓동네’라 하여 毛瑟浦로 표기되기도 했다. 沙浦가 바로 ‘모살개’의 차자표기인데, 일본어 표기 ‘モシルゲ’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2.19. 於道里

於道里/オドニー, 於道岳/オドオルム, 龜沒伊洞/タモルメートン, 者伊田/チャイゲョン, 上花田/ウッフウヂョン, 下花田/アレウウヂョン, 猫岳/クユオルム, 新星岳/セピョルオルム

於道里는 ‘어도노미^ㅁ을’의 차자표기이다. 본디 ‘도노미’라 부르던 곳인데, 조선 후기에 ‘얼음비’ 가까이 있는 도노미라는 데서 어도노미^ㅁ을이라 하고 차자표기로 於道內山里라 표기하다가, 內와 山을 생략하여 於道里라 했다. 1950년대에 鳳城里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於道岳은 ‘어도오름’의 차자표기이다. 본디 ‘도노미’라 부르다가, 어도리를 於道里라 하게 되면서 이 오름 이름도 道內岳으로 표기한 것이다. 지금도 주로 ‘어도오름’이라 하고 있다.

龜沒伊洞은 ‘구몰릿동네’의 차자표기이다. 지금 마을 입구 뜻돌에는 龜沒泥洞으로 표기되어 있다. ‘몰리’는 ‘^ㅁ리^ㅁ르’의 변음인 ‘^ㅁ리’에서 온 것인 듯하다.

者伊田는 ‘자리왓·재리왓’의 차자표기이다. 어도리의 자연마을 가운데 하나였는데, 제주4·3사건 이후에는 폐동되었다. ‘자리·재리’는 잠자리를 이르는 듯하다.

上花田과 下花田의 花田은 火田을 잘못 쓴 것으로, 각각 ‘웃화전’과 ‘알화전’을 이룬 것이다. 오늘날은 화전동(火田洞)이라 하고 있다. 花田이 火田의 잘못이 아니라면, ‘곶밭’의 표기로 볼 수도 있으

나, 민간에서 ‘곶밭’이라는 지명을 확인할 수 없다.

봉성리 산간에 ‘퀘미오름’이 있는데, 猫岳으로 표기했다. 일본어 ‘クオオルム’은 ‘퀘오름’을 표기한 것으로, ‘미’를 표기에서 생략한 것이다.

‘퀘미오름’ 아래쪽에 ‘새별오름’이 있는데, 新星岳으로 표기했다. 일본어 ‘セピョルオルム’에서 ‘새별오름’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론

일제강점기에 전라남도 제주군 신우면의 지명은 『조선지리지』(1911)와 일제강점기 1대 5만 지형도(1918)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자료에는 당시 신우면 지명을 대부분 한자로 표기해 있다. 1대 5만 지형도(1918)에는 일본어로도 표기되어 있어서, 지명 해독에 도움을 준다.

이 두 자료의 지명은 대부분 마을 이름, 동네 이름, 오름 이름 등이 주가 되고, 일부 내 이름, 개 이름, 원 이름, 물 이름, 동산 이름 등도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지방 행정 구역에 포함되는 마을 이름은 일관된 표기로 쓰였지만, 자연 지명인 동네 이름과 오름 이름은 물론 내 이름, 개 이름 등은 조금씩 표기가 다르다. 그 이유는 당시 지명 조사자와 기록자의 인식, 지명 제보자의 인식 등이 다른 데서 생겨난 것으로 추정한다.

애월읍 광지리와 남읍리 경계에 있는 오름 이름의 경우, 『조선지리지』(1911)에는 窠峰(과봉)으로 표기하고, 1대 5만 지형도(1918)에는 郭岳/ククオルム으로 표기되어 있다. 첫 자는窠와郭

으로 표기되고, 둘째 자는 峰과 岳으로 표기되었지만, 일본어 クックオルム은 ‘과오름>과오름’을 표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郭岳은 조선시대 차자 표기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고, 窠峰은 현실음 ‘과오름’을 표기한 것으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광령리를 지나는 내는 오늘날도 ‘무수내’라고 하고 있는데, 각종 지형도에는 無愁川(무수천)으로 표기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蕪藪川(무수천)으로 표기되고, 조선시대에는 無愁川(무수천) 또는 水鐵川(수철천) 등으로 표기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에는 ‘무수내’ 또는 ‘무쇠내’ 정도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일제강점기의 지명을 제대로 분석하면, 조선시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명 소리의 변천, 표기의 변천 등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본론에서 언급한 한자 표기와 차자 표기, 일본어 표기를 밝히고, [] 안에 고유어 지명을 제시하고 정리하여 마무리한다.

光令里/クワンヨンニ[광령이^ㄹ 올] 光舍里(光令里的 오기) 光洞/クワンドン[광동이^ㄹ 광동이], 有信洞/ユウシンドン[이신골>이싱골], 紗羅洞/サヲドン[사랏골], 蕪藪川[무수내], 高峙[높은^ㄹ 르], 赤岳/ブルクンオルム[붉은오름]

下貴里/ハーキリ[알귀일^ㄹ 올], 破軍峰/パクンボン[바굼지오름], 君郎洞/クンナドン[군령잇동네], 味水洞/シミスードン[일미물동네], 可文洞/カムドン[감은잇동네], 盖水洞/ケースードン[개물동네], 屏風川[벵풍내], 鵬登川[봉등내], 黃浦[한개>황개], 一味水[일미물]
上貴里/ソンキリ[웃귀일^ㄹ 올], 昭王洞/ソウドン[소왕잇골]
水山里/スーサンリ[물메^ㄹ 올], 水山峰/スーサンボン[물메오름], 院川 [원내]

舊巖里/クーオムニ[묵은엄쟁이^ㄹ 올], 槎浦[텃개], 院東山里[원동산^ㄹ 올]

- 新巖里/シンオムニー[새엄쟁이마을]
 長田里/チャンヂョン리[장밭마을]
 召吉里/ソキリ[췌질마을]소길마을, 院洞[원골]원동, 院/ラン[원]
 古城里/ヲソン유[묵은성]고성 峴성, 極洛峰[그레기오름], 三山岳
 /サムサン올름[산세미오름]삼세미오름
 下加里/ソーガリー[알더럭마을], 蓮花池·蓮池/ヨン케[연화못·연못]
 上加里/ソンガリー[웃더럭마을]
 今德里/クムトクリ[금은데기마을], 今德峰[금은데기오름], 流水洞/
 ユースードン[흐리물바웃동네], 鹿古岳/ノクコメ올름[노꼬메오
 림], 老路岳/ノロ올름[노로오름]
 高內里/コーネーリー[고내마을], 高內峰/コーネードン[고내마을], 右
 指浦[우짓개]
 涯月里/アユタルリ[애월마을], 下水浦[하물개], 涯月嶺[애월진], 涯月
 場[애월장], 水頭洞[물머릿동네]
 納邑里/ナウブリー[납마을], 東坪[동벙디]
 於音里/オウムニー[어림비마을], 夫面洞/ブミョンドン[부메닛골], 月
 角洞/ヲルカクドン[ㄷ계곶동네], 月角伊/ヲルカクイー[ㄷ계곶], 漢
 大岳/ハン데올름[한데오름], 多栗岳/タレ올름[ㄷ레오름], 發伊
 岳/パルミ올름[바리메오름]
 郭支里/クウクチリ[곽지마을], 長沙浦[진모살개], 窠峰[과오름], 郭岳
 /クウク올름[곽오름]과오름
 錦城里/タムソンニー(금성리), 沙浦/モシルゲ[모슬개·모살개]
 於道里/オドニー[어도노미마을], 於道岳/オド올름[어도노미오름]어
 도오름, 龜沒伊洞/タモルメートン[구물릿동네], 者伊田/チャイ
 ゲョン[자리왓·채리왓], 上花田/ウッフワヂョン[웃화전], 下花田/
 アレウワヂョン[알화전], 猫岳/クユ올름[괘미오름], 新星岳/セ
 ビョル올름[새별오름]새별오름

【참고문헌】

- 북제주군 (사)제주학연구소(2006), 『북제주군 지명 총람 상 : 한림읍 · 애월읍 · 한경면』.
- 오창명(2007),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I』, 제주대학교출판부.
- 오창명(2007),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II』, 제주대학교출판부.
- 오창명(2007), 『제주도 오름 이름의 종합적 연구』, 제주대학교출판부.
- 오창명(2009), 『남쪽 벼슬아치가 쓴 18세기 제주박물지 : 남환박물』, 도서출판 푸른역사.
- 오창명(2011), “『조선지리지자료』의 제주 지명(1) : 제주군 신좌면(新左面 : 조천읍) 지명을 중심으로”, 『지명학』 17집, 한국지명학회.
- 오창명(2012), “『조선지리지자료』(1911)의 ‘제주군 신좌면(조천읍) 오름 이름 고증’”, 『제주학산책』, 제주학연구자모임.
- 오창명(2014), 『탐라순력도 산책』, 제주발전연구원.
- 한글학회(1986), 『한국지명총람 16 : 전남편Ⅳ · 제주편』.

【Abstract】

A Study of Jeju toponymy during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 Focal point of Jejugun Sinwumyeon(Aewoleup) -

Oh, Cang-Myoung

This is studied a Jeju toponymy part of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Jejugun Sinwumyeon'(now Jeju-si Aewoleup). Basic data was based on Joseon-jiji-jaryo(1911) and A Topographic Map 1 to 50,000(1918). I put Sinwumyeon nomination into shape to lists at this data. It looked up what native sound was to be made by Chinese character borrowing notation. I would grasp meaning as analyzed a form of Jeju toponymy.

I were able to grasp how notation was changed through these analyses in the processes that place name came to stay in the present age. Also, I were able to grasp how sound was changed.

I was able to confirm the place name of approximately 40 JeJuGun Sinwumyeon at Joseonjijijaryo(1911). I was able to confirm the place name of about 60 JeJuGun Sinwumyeon at A Topographic Map 1 to 50,000(1918).

I confirmed these place name of approximately 100 of this data, and subdivision called all to an administrative village, and I analyzed the place name.

I was able to grasp how notation was changed into place name through analyses in the processes that nomination came to stay

in the present age. Also, I were able to grasp reached in the present age, and how sound of place name was changed.

【Keywords】 :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Jeju Toponymy, Sinwumyeon, Joseon-JiJi-Jaryo(1911), A Topographic Map 1 to 50,000(1918)

오창명(吳昌命)

주소 : (690-77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만덕로 3길 26 108동 701호
(건입동, 현대아파트)

전자우편 : garinyeo@naver.com

이 논문은 2015년 12월 6일 투고되어

2015년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심사하고

2015년 12월 14일 편집회의에서 게재 결정되었음